

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United Nations Publication
Copyright © United Nations 2012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Bangkok
ST/ESCAP/2648

Disclaimer

Reproduction of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for sale or other commercial purposes, including publicity and advertising,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Applications for such permission, with a statement of purpose and extent of the reproduction, should be addressed to the Director, Social Development Division,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at <escap-sdd@un.org>.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November 2012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 및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목차

서문	2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	3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11
A. 배경	14
B. 주요 원칙 및 정책 방향	15
C. 목표 및 세부목표	18
D.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제 : 국가 · 하위지역 · 지역 차원	34
부속서	
아태장애인 10년에 관한 지역 실무그룹 운영규정	39

서 문

ESCAP 회원국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 모여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년)을 위한 행동방향을 정립하였다. 이번 논의에 장애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간 기구와 개발협력기구 및 유엔기구가 참여하였다.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ESCAP이 주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결론짓고 새로운 10년을 출발시켰다.

이번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문과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하였다.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역차원에서 합의된 장애포괄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년여에 걸친 정부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마련된 인천전략은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아태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부분 빈곤에 처해있는 6억5천만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권리가 실현되는 진전과정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ESCAP 사무국은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이 끝나는 2022년까지 매 3년마다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 정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 (이하, 장관선언)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태 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에 모인 우리 유엔에스캅(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회원·준회원국의 장관과 대표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프로그램’¹을 채택한 유엔총회 결의안 37/52 (1982. 12. 3) 및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을 채택하여 장애인을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개발의 주체인 동시에 수혜자로 인정한 결의안 48/96(1993. 12. 20)을 상기하고,

또한 2008년 5월 3일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던 유엔총회 결의안 61/106(2006. 12. 13)을 상기하며,

나아가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빈민과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책과 행동의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인정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약속을 지키자”라는 제목의 유엔총회 결의안 65/1(2010. 9. 22)을 상기하고,

“앞으로의 길: 2015년과 그 이후를 위한 장애포괄개발 의제”²라는 중대한 주제로 2013년 9월 23일에 국가·정부 수반 수준에서 ‘장애인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및 기타 국제개발목표 이행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간안보에 관한 합의된 공통의 이해를 규정하고, 특히 모든 개인, 그 중에서도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인간적

1 A/37/351/Add.1 and Corr.1, annex, sect. VII, recommendation 1 (IV).

2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124 of 19 December 2011.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더불어 두려움과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총회 결의안 66/290(2012. 9. 10)을 상기하고,

또한 세계 최초로 지역 차원의 장애인 10년 계획을 선언한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에 관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48/3(1992. 4. 23)을 상기하며,

나아가 21세기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아태장애인 10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58/4(2002. 5. 22)를 상기하고,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간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히 회원·준회원국의 지지를 촉구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59/3(2003. 9. 4)을 상기하며,

또한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및 비와코 플러스 5’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의 마지막 해인 2012년에 그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의 개최를 결정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64/8(2008. 4. 30)을 상기하고,

预览已结束，完整报告链接和二维码如下：

https://www.yunbaogao.cn/report/index/report?reportId=5_5350

